

300-6-142. 신문조서(洪承裕 외 11명 치안유지법 위반) 1

■ 洪承裕 외 11명 의 治安維持法 위반사건 기록 수록

- 崔德俊은 1926년 陰 5월경 金福萬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였으며, 동회 만주 총국 간부 姜徹의 命으로 間島에서 온 高光洙와 같이 1929년 1월 滿洲 吉林省에서 會合하였고, 京城에서 6월경 각 中等學生의 讀書會를 조직하게 하며 공산주의적 교양을 실시하여 공산청년회원의 양성에 노력했다. 印貞植은 日本朝鮮青年同盟 사무소에서 고려공산청년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가입하여 日本部 責任秘書에 선임되었고, 조선공산당에 가입·활동했다. 京城 各學校에 讀書會를 조직, 마르크스主義를 지도하였다. 金孝觀은 洪泰裕의 권유로, 姜潤求는 印貞植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활동했다. 洪承裕·金泰翼·徐昌은 崔德俊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에 加入하였고, 宋秉天은 李鍾林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에 加入하였다. 姜玟鎬는 洪泰裕의 권유로, 金炳成은 姜玟鎬의 권유로, 李範洙는 姜玟鎬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였다.
- 崔德俊은 1929년 7월 16일에 檢事의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았으며, 印貞植·洪承裕·金孝寬·金承翼·徐昌·姜玟鎬·金鍾禹·金炳成·李範洙·金永卓·姜周軾·李道伯·李天山·張洪琰·成秉昌·朴勝源·高鉉豐·李秉珏·崔三京·高在燮·鄭樂煥·辛圭璇·吳命煥·康恒潤·高成麟·宋秉天·金允洙·姜潤求·玄雲弼 등에 대한 檢事의 피의자 신문조사도 7월 16일에 실시되었다. 각자의 구류장이 발부되었고, 본적조회와 身元조사가 있었다. 檢事의 2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7월 24일에 崔德俊·徐昌·姜玟鎬·辛圭璇·吳命煥·康恒潤·高成麟·金鍾禹·金炳成·李範洙·金台洙 등에게 進行되었다.
- 7월 25일에는 姜潤求·宋秉天·鄭陳煥·高在燮·崔三京·洪承裕·印貞植·玄雲弼·金孝寬·金泰翼·李道伯·李天山·張洪琰·張秉昌·朴勝源·姜周軾·金永卓·李秉珏·高鉉豐 등에 대한 檢事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본적조회와 身元조사가 있었다.
- 1929년 7월 26일 檢事의 豫審請求가 있었다. 洪承裕 외 11명의 治安維持法 違反사건이며, 활동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다. 구류만기로 구류기간이 연장되었으며, 證據品押留가 있었다.
- 1929년 11월 11일부터 判事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進行되었다. 印貞植은 11월 1일에 被告人 신문조사를 받았다. 구류기간 만료로 구류기간 갱신결정이 있었고, 증거물 押收가 있었다. 印貞植에 대한 2회 피고인 신문조사는 2월 20일에 進行되었다. 이들의 구류기간은 갱신되었다.
- 6월 23일에는 崔德俊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24일에 宋秉天, 25일 印貞植의 3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27일 洪承裕·姜潤求·金孝寬·金泰寬, 28일 徐昌·姜玟鎬·金鍾禹·金炳成·李範洙의 2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指紋채취와 行狀보고가 있었다. 6월 30일 崔德俊·宋炳天·印貞植·洪泰裕·姜潤求·金孝寬·金泰翼·徐昌·姜玟鎬·金鍾禹·金炳成·李範洙 등의 2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 7월 4일에 豫審係 判事가 檢事국에 意見書를 求하였고, 豫심종결 결정으로 경성지방법원의 7월 5일 公판에 회부되었다. 구류기간 갱신이 있었고, 변호사 金基賢·楊潤植·李仁 등의 변호인 선정계가 제출되었으며, 1930년 12월 30일 李範洙의 陳述書가 제출되었다.
- 1931년 2월 19일부터 1회 公판이 進行되었다. 2회 公判은 1931년 3월 2일에 進行되었으며, 각자의 활동사실 확인이 日문일답식으로 進行되었다. 3회 公判은 3월 9일에 개정되었으며, 판결선고가 있었다. 姜玟昌 懲役 2년 6월에 米결구금일 통산 350일, 印貞植 징역 6년 米결구금일 통산 250일, 崔德俊 징역 6년 米결구금일 통산 350일, 洪承裕 징



역 3년 미결구금일 통산 250일, 金泰翼 징역 3년 미결구금일 통산 350일, 宋秉天 징역 3년 미결구금일 통산 350일, 徐昌 징역 2년 미결구금일 통산 350일, 姜潤求 징역 2년 미결구금일 통산 350일, 金鍾禹 징역 2년 미결구금일 통산 350일, 金孝寬 징역 2년 미결구금일 통산 350일, 但 執行猶豫 5년이 선고되었다.